

전남도, 천일염산업 '기반구축' 지원 강화

국립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신설

생산자 편의 제공 한몫할 것 기대

전라남도는 천일염의 우수한 가치와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천일염 산업에 대한 기반구축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우선 '국립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총사업비 100억 원)를 신설기로 하고 올해 정부 예산에 실시실계 용역비 3억 5천만 원이 반영됐다.

특히 소금에 특성화된 연구센터는 R&D, 품질검사 등 분산된 국가 사무를 일원화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천일염 주산지인 전라남도에 유치될 경우 생산자 편의 제공에도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천일염의 유통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를 신안군에 건립중이다.

총 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지난 2018년 시작돼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구축되면 국제식품규격(CODEX) 등 해외 수요를 충족시키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천일염 수출시장 개척 및 소비시장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여름철 대량 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영광과 신안에 천일염 임시야적장을 조성(23억 6천만 원, 2020년~2021년)하고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조감도

있다. 이는 곧 산지 가격 결정에 있어 중요한 생산자의 수급 조절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영조 전라남도 수산유통기공과장은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고품질 천일염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국립 소금 산업진흥연구센터 및 유통센터를 통

해 산업의 체계화는 물론 신규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천일염 생산량은 26만 2천t으로 이중 전남산이 93%인 24만 4천t을 차지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동구, 공중개방화장실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광주 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190개소 공중 및 개방화장실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 및 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보다 청결한 공중 위생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개방화장실 168개소, 공중화장실 22개소 등 190개소이며 점검내용은 ▲시설물 동파예방 점검 ▲비상벨 작동여부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이행 여부 ▲화장실 청결상태 및 편의용품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해 이용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구, 청소취약지 맞춤형 특별환경정비 실시

광주 서구는 지난 12월과 1월 두 차례의 폭설로 인해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아 주민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상무1동 일대를 대상으로 특별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정비를 위해 지난 15일 상무1동 청소취약지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무원, 주민, 대협업체 등 100여명과 재활용품 분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차량 9대로 이면도로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약 8톤 가량 수거하였다.

상무1동은 이면도로 대부분이 급경사이며 지형적 특성으로 강설시에는 청소차량 진출입이 어렵고 특히 전국최대 규모인 단일 원룸촌으로 평소에도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많아 청소 취약지역으로 특별관리되고 있다.

남구, '백운광장 뉴딜사업' 주민의견 듣는다

광주 남구는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백운광장 뉴딜사업에 대한 지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이틀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1일과 22일 오후 4시부터 백운광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

주민 설명회 첫날인 21일에는 백운광장 및 독림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상인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백운광장 뉴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22일 주민 설명회는 백양로 일대 거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는 올해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푸른길 공공 보행로 사업을 비롯해 스트리트 푸드 존, 남구청사 외벽과 레이저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등 세부 사업에 대한 추진 일정 및 비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북구, 제2기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모집

광주 북구는 오는 22일까지 제2기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위원 2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는 청년정책 예산편성 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운영된다. 위원은 예산편성 관련 의견수렴, 예산·결산(안) 의견 제출, 주민참여예산제 홍보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 만 39세까지인 청년으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구 소재 대학의 재학생·휴학생,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등이다.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도 지원이 가능하다.

광산구, 똑똑한 광산구 주차장과 앱 이용하세요

광주 광산구가 19일 수완동 플랫폼 시범단지인 장자울아름마을5단지아파트에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도시에 도입해 주차난을 해소하는 '2020년 스마트시설관리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산구는 민간기업,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과 협업을 스마트시설관리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 정보통신기술 기반 '광산시민행복주차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공유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전남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2개소 37ha 조성...연 6.2t 미세먼지 저감 기대

전라남도는 생활권 미세먼지 유입 차단 및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올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비로 전국 최다인 35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관련기사 7면】**

미세먼지 차단숲은 노후산단과 폐기물처리장, 생활권 주요 도로변 등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주거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라남도의 올해 사업비는 총 350억 원으로 지난해 150억 원보다 2배 이상 증액됐으며, 올해 전국예산 1천 471억 중 가장 많은 24%를 차지했다. 사업은 도내 12개소 37ha 규모로 추진되며, 시군별로 ▲목포 옥암수변지역(2ha) ▲여수 옛전라선 폐철도 등(7ha) ▲순천 울촌산단 등(7ha) ▲광양 폐철도 등(7ha) ▲곡성 경면 농공단지(3ha) ▲보성 폐국도(2ha) 등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화순 화순천(1ha) ▲강진 쓰레기매립장(1ha) ▲영암 대불산단(1ha) ▲무안 남악신도시(2ha) ▲함평 축산농공단지(1ha) ▲신안 자은쓰레기소각장(3ha) 등에서도 사업이 이뤄진다.

전라남도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수중선정과 식재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상지들의 사전설계를 마

쳤으며, 오는 2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후박, 아왜나무, 홍가시 등 상록활엽수와 함께 경관적으로 우수한 수종이 설계에 반영돼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숲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37ha의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되면 연간 6.2t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17년 1ha의 숲이 경유차 27대가 연간 내뿜는 168kg의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도시숲의 부유먼지와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부유먼지 25.6%, 미세먼지 40.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호 전라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전남형 그린뉴딜 실현과 도민 녹색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 조성하겠다"며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산림청 국비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 명당산단, 목포 대양산단, 순천 울촌산단 등 총 14개소에 250여억 원을 투입해 24.4ha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

김정환기자

광주시, 미래먹거리 '공기산업' 육성

광주광역시시는 공기산업을 미래 먹거리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융복합단지 조성, 투자 기업 유치, 실내 공기개선 실증센터 구축, 지역 기업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공기산업 융복합단지는 2025년까지 500억원을 들여 평동 3차 산업단지에서 13만2000㎡ 규모로 조성 중으로, 관련 전문 지원기관과 연구기관, 엔지니어링 등을 유치해 공기산업 클러스터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주)대창 등 공기산업 관련 9개 기업과 448억원 규모의 1차 투자협약을 체결해 융복합 단지에 공장이 실제로 착공 되는 등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산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시는 대형 국비 발굴 사업인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사업'의 마중물로 취약계층 시설의 공기개선을 위한 '실내 공기개선 실증센터 구축사업'에 국비 20억을 확보해 올해부터 인증 실증 장비 구축과 지역 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센터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내 공기개선 실증센터는 실내 공기정화 성능테스트를 위한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험시설과 인공지능 연계 가상환경을 구

축해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 시 요구되는 인증에 대한 애로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역 에어가전 기업의 매출 2000억원, 수출 330만달러, 120명 고용 창출 등 수출지원 성과도 가시화 되고 있다.

광주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공기산업진흥회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신남방 국가(싱가폴,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공동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1차 지원의 성과로 2019년 대케이 등 9개사 10개 제품이 싱가포르 진출에 성공해 현지 가전 유통회사인 AOM사, dna사와 200만달러 수출 계약을 이끌어냈다.

2차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어가전 제품 시장조사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대영전자(주) 등 13개사 25개 제품의 수출지원을 위해 태국에 공동전시관을 설치하고 현지 바이어 온라인 상담회와 태국 흡수필 진주를 위한 영상제작을 완료했다.

1월 중 현지 흡수필 등에서 방송 예정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해 에어가전제품이 신남방국가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인문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어가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소득계층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고소득층	1.1배 (240,833원)
4분위	1.7배 (125,531원)
3분위	2.1배 (79,147원)
2분위	2.7배 (48,103원)
저소득층	5.3배 (26,697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